

먹고 마시는 쿡폴리... ‘청미장’ ‘콩집’ 오세요

광주폴리

동구 산수동에 한옥 리모델링 개관
총장로 뽀뽀폴리·미니폴리도 설치
3차 폴리 5개 3월 말까지 완공 예정

10일 광주시 동구 산수동(363-22번지)에 자리한 쿡(Cook)폴리가 정식 개관하며 3차 광주폴리 중 일부가 처음 일반인들에게 공개됐다.

3차 광주폴리는 쿡폴리를 비롯해 뷰(View)폴리, GD(Gwangju Dutch)폴리, 현상공도 당선작 뽀뽀(FunPun)폴리, 미니(Mini)폴리 등 5개(작품 11개)로 구성된다. 산수동과 총장로, 비엔날레광장 일대에서 만날 수 있다.

이날 문을 연 쿡폴리는 서울 경리단길을 문화명소로 만든 장진우 셰프가 참여해 산수동 빈 한옥을 리모델링한 한식레스토랑 ‘청미장’과 카페 ‘콩집’으로 이뤄진 작품이다. 도심 재생과 청년실업 등 사회 문제를 ‘식당’이라는 형태의 해결책을 제안하는 작품으로 장 셰프에게 교육을 받은 청년 7명이 ‘맛있는골목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영한다.

11일부터 연중 무휴로 청미장은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 문을 열고, 콩집은 일요일~목요일은 오전 11시부터 밤 10시, 금·토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영업한다. 콩집은 다음주 수요일(18일)부터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청미장 주 메뉴는 곱창전골, 불고기전골·스지전골이고 콩집에서는 커피, 차, 외국 맥주, 칵테일 등을 판매한다.

개막행사에는 윤장현 광주시장,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재단 대표이사, 천득염 광주폴리시민협의회의 회장, 천의영 3차 광주폴리 총감독, 장진우 셰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청년연합 ‘길놀이 풀물패’, ‘빌 스트릿 스웬벤드’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테이프 커팅식, 헌관 제막식 등이 진행됐다.

이어 쿡폴리 인근 산수동 푸른마을공동체(363-4번지)에 설치된 GD폴리 중 ‘꿈 집’ 작품과 미니폴리 ‘스펙트럼’(SPECTRUM) 투어시간을 가졌다.

조병수 건축가가 제작한 ‘꿈 집’은 지금은 사라진 박공 형태 건물을 비틀고 과장한 작품이다. 521개 청동판과 399개 티타늄판으로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행복을 주는 집을 형상화했다.

마지막 뗏목을 연상시키는 ‘스펙트럼’은 덴마크 아르투스 대학교 건축학과 라이프 호그펠트 한센 교수와 학생 12명이 제작했다. 하얀 삼각돛과 나무바닥으로 만들어졌으며 빨강·초록·파랑 조명으로 볼거리를 더했다. 앞으로 광주



곳곳을 이동하며 시민들과 만난다.

한편, 이날 함께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김찬중 건축가와 진시영 미디어아트스트가 협업한 ‘뽀뽀폴리’는 현재 총장로 1~5가에 4개 작품(광주폴리 ‘사랑방’, 연다방, 달콤커피, 거북이안경집)이 설치돼 있다. 각 작품 별로 서로 다른 주제를 담고 있으며, 움직임에 반응하는 화려한 LED조명과 소리를 통해 즐거움을 선사한다.

비엔날레광장에서 볼 수 있는 미니폴리 ‘인피니트 엘리먼트’(Infinite Elements)는 국형길·신수경 작가가 제작했다. 뫼비우스 띠를 연상시키는 모양과 시시각각 변하는 조명이 특징이다.

GD폴리 중 네덜란드 위니마스 건축가의 작품과 광주시 동구 문화전당 인근 광주영상복합문화관 건물 옥상에 조성 중인 뷰폴리는 완공이 늦어지고 있다.

GD폴리는 원래 부지였던 서석초등학교 앞 차 없는 거리에서 산수동으로 위치를 옮김에 따라 위니마스 건축가가 기본 디자인을 수정하고 있다. 이달 말 산수동 주민 대상 작품설명회를 거쳐 올해 3월까지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다. 네덜란드 미디어아트 작가 요플과의 협업도 구상하고 있다.

뷰폴리(문훈 건축가, 독일 안 에들러·팀 에들러)는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을 계기로 실시한 건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이 나와 현재 보강 공사와 작품설치를 병행해 추진 중이다.

뷰폴리 역시 늦어도 3월까지의 준공한다는 방침으로 비엔날레재단은 모든 폴리가 완성되는 대로 전체 투어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062-608-426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레

뉴욕 맨하튼의 7번가를 지나면 르네상스풍의 건물이 나온다. 전 세계 음악인들이 한번쯤 서고 싶어 하는 카네기 홀이다. 하지만 콧대 높기로 유명한 카네기홀에게도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있다. 1944년 10월 25일 역사상 최악의 음치 소프라노로 불리는 플로렌스 포스터 쟁킨스(Florence Foster Jenkins·1864~1944)공연이다. 대관에 간간한 카네기홀이 쟁킨스 남편의 ‘로비’에 넘어가 음악회를 허가해 준 것이다.

사실 쟁킨스 여사는 뉴욕 사교계 애선 소문난 음악애호가였다. 부모로 부터 상속받은 막대한 유산을

이런 쟁킨스의 ‘하상’을 눈치챈 뉴욕타임스 기자는 그녀의 남편 계략으로 이미 전석(5000석) 매진된 티켓을 어렵게 구해 카네기홀에 들어갔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의 목소리는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소음’에 가까웠다. 하지만 객석의 청중은 일제히 무대인사를 하는 그녀를 향해 환호를 보냈다.

공연 다음날, 쟁킨스의 ‘실체’를 보도한 뉴욕타임스의 악평 기사로 그녀는 큰 충격을 받게 된다. 게다가 자신에 대한 그간의 찬사가, 실은 ‘왜곡’의 산물이었다는 현실을 깨닫게 된 후 사립시름 앓다 세상을 떠나고 만다. 숨을 거두기 전, 그

꿈을 꾸는 당신이 아름다운 이유

바탕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그녀는 지인들로 구성된 ‘베르디클럽’을 운영하며 자신의 거실에서 종종 음악회를 열었다. 어린 시절 백악관에서 피아노를 연주할 정도로 재능이 뛰어났지만 오른쪽 손이 마비되는 병을 앓면서 오페라 가수로 바꿨다. 재력을 앞세워 유명 지휘자로부터 성악 레슨을 받았고 자신의 노래를 담은 음반 ‘The Glory of the Human Voice’도 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열정이 무색하게 성악에 대한 소질은 전혀 없었다. ‘베르디클럽’을 통해 가난한 예술가들을 후원한 그녀에게 주변의 음악인들은 ‘의리상’ 차마 음치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의 음악에 대한 진지한 자성에 감화돼 팬클럽을 만들었다. 당대 최고의 성악가 프리다 헬펠이 자신의 경쟁 상대라고 공공연하게 말했다고 하니 쟁킨스의 ‘착각’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간다.

그러나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

녀는 남편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긴다. “내가 노래를 못한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내가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People may say I couldn't sing, But no one can say I didn't sing)

그녀의 진심이 통했을까? 이날 ‘최악의 공연’(?) 실황은 지금도 카네기홀 아카이브검색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음악에 대한 그녀의 무모한 도전은 프랑스와 미국에서 2차례 영화로 제작됐다.

정유년 새해다. 이맘 때면 새로 온 다이어리에 ‘버킷리스트’를 적느라 바쁘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누구나 한번쯤 자심삼일로 그치거나 성과없이 끝난 신년소망에 자책하거나 허탈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꿈을 꾸는데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는 말자. 중요한 건 화려한 성과 못지 않게, 올 한해 자신의 멋진 꿈을 향해 달리는 열정이니까.

〈편지부국장·문화선임기자〉

광주시립사진전시관 사진예술단체 초대전 공모

광주시립미술관이 광주시립사진전시관 사진예술단체 초대전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광주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사진예술단체(단체전 3회 이상) 3개를 선정, 전시공간과 홍보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접수는 19일부터 3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내 분관사무실에서 받는다.

결과는 다음달 8일 발표할 예정으로 전시 일정은 추후 협의를 거치게 된다.

한편 시립사진전시관은 광주문화예술회관 별관 1층에 지난해 10월 문을 열었다. 515㎡(약 156평) 규모로 사진·영상 등을 전시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문의 062-613-713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계간지 ‘창’ 37호 발행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백수인)이 발행하는 문화담론 계간지 ‘창’ 37호가 나왔다.

이번호 특집은 2016년 광주지역 여성·청년·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시민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회고와 평가를 통해 2017년을 예측하는 기획이다. ‘현오사회

와 페미니즘’(백희정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표), ‘2016. 세상 밖으로 ‘청년’을 외치다’(정두용 청년문화 허브 이사장), ‘광주를 광주답게 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윤난실 광산공익활동지원



센터장) 등 각 분야 전문가 글을 실었다.

‘문화인 탐구생활’에서는 아마추어 연극인을 위한 시민연극제를 제안하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광주시민연극제 예술총감독을 맡은 김종필 극단 ‘연인’ 대표를 밀착 취재했다.

‘문화진단’에서는 박선정 광주대 겸임교수의 ‘광주프린지페스티벌, 광주의 정체성을 담아라!’, 강위원 투게더광산 나눔문화

재단 상임이사의 ‘촛불민주주의, 메이드인 코리아’를 통해 지역 현안을 짚는다.

그밖에 ‘문화청년그룹’은 양동준 하니 펀치프로젝트 대표의 글을 선보이고, 이민원 광주대 교수, 주홍 치유예술가, 김영순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장이 ‘문화특목’ 코너에 등장한다. ‘창’은 재단 홈페이지(www.rcef.or.kr)에서도 볼 수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당신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인가요?

실버벨

Silver Bells

12월, 전국 극장 대개봉

철없는 아با와 철든 아들의 좌충우돌 크리스마스가 온다!

● 관람문의 | 광주 CBS (062-376-8500)